금주의 법구–〈아함경〉
타인은 곧 나이고
나는 곧 타인이라고 생각해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월 20일)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코로나 시대 기부 한파 후원 문화 다변화 필요

[기 획]
포스트코로나 '랜선 기부'

① 코로나로 반토막 불교기부
② 랜선기부 '플랫폼' 어디에?
③ 랜선 '디지털 에이징' 뜬다
④ 불교 랜선기부 롤모델은?
⑤ 포스트코로나 기부문화 미래는?

기부 최대 75% 감소까지
대면접촉 치중해 타격 커
'기부 감소 우려' 설문 1위
랜선기부 새 문화 조성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9년 12월 한국에 번진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그리고 불교계에도 큰 변화를 초래했다. 1년여가 지난 2021년, 불교계 기부처의 기부후원액이 코로나로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스트코로나와 위드코로나의 시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온라인 랜선기부를 중심으로 한 불교기부문화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본지가 2020년 불교계 기부단체와 NGO들의 기부 및 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부 모연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경우 캠페인모금과 일반기부의 경우 2019년 각각 6191만원, 7억 7940만원에서 2020년 4543만원, 6억 2281만원으로 감소했다. 캠페인에서 26%, 일반분야서 20%가 감소한 수치다. 다만 아름다운동행은 조계종이 종단차원에서 진행한 백만원력불사기금과 수해피해복구기금 등이 대폭 증가하여 총액은 54억여원에서 125억여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주윤식)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모연사업 또한 2020년 총액 4046만원으로 2019년 대비 25% 수준으로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날마다좋은날의 경우 4000여 포교사들이 직접 모금함을 들고 300여 사찰에서 모연을 하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기부 한파가 몰아친 곳은 주요 기부처 뿐만이 아니었다. 산하 복지관 관리와 함께 사회공적 활동도 담당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도 신년 기자회견서 재단에 대한 일반후원이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교계 대표 장기기증처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2020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2130명으로 2019년 등록수치를 기준으로 잡은 목표치 5000명에 비해 43% 밖에 되지 않았다.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또한 2020년 1478명으로 2437명 목표 대비 약 61% 수준이었다. 면허시험장과 대학가에서 장기기증을 받고 있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사실상 개점 휴업 지경에 이르렀다.

불교계 대표 장애아동 복지기관인 승가원 또한 코로나 여파가 밀어닥쳤다. 승가원은 2020년 74억 9000만원 후원으로 2019년 79억 9000여만원에 비해 5억여원이 감소했다. 승가원 측은 "2021년 1월 후원금을 보면 5억 4371만원으로 지난해 1월과 대비하여 13%가 줄어 기부후원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코로나 기부한파는 비단 불교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른바 락다운에 의한 올스톱 상태와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난으로 기부모연이 크게 감소했다. '사랑의열매'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2020년 나눔목표액 350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염두해 목표액 자체를 2019년 4300억원에서 750억원을 사전에 줄였다. 최종 나눔목표액을 비교하면 18%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기부모연액 감소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중단과 나눔활동 전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름다운재단이 2020년 12월 '코로나19 시대의 민간모금과 비영리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기부단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부단체들은 '코로나 이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로 '기부금 감소'를 1위로, '프로그램 축소로 인한 수입 감소'를 2위로 꼽았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기부가 중단되거나 줄었다는 단체들은 전체 78.2%에 달했으며 각 단체들은 기부금 감소에 의한 활동 축소 우려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람들간의 접촉이 차단되고, 각종 업장이 멈추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기부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젠 코로나 양극화로 인한 소외계층 증가에 대한 자비나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기반인 기부문화 확산은 불교를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기간 삶의 변화를 경험한 이들이 종식 후에도 예전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온라인 기부 활성화와 같이 짧게는 정부서 밝힌 11월 집단면역, 길게는 기부문화의 다변화까지 고려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입학식도 이젠 온라인 시대 동국대는 2월 22일 줌 ·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입학식을 사상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사전 신청한 1000여 명의 학생 중 100명의 학생들이 줌을 통해 무대 위 대형스크린에서 화상으로 대면하고, 3000여 명의 학생들은 동국대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댓글로 참여했다. 또한 온라인 대화를 통해 신입생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기도 했다. 사진은 윤성이 총장이 환영사를 하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불교무형유산 목록화' 추진

문화부 '불교무형유산 조사 · 연구사업' 진행

국고 1억원 지원… 동국대서 연구
범불교적 무형유산 파악 이뤄질 듯
학술적 기초자료 수집에도 의미 커

불교는 유 · 무형 문화재의 보고이다. 특히 무형유산의 경우 불교 전통 의례부터 풍습까지 다양하다. 어쩌면 일선 사찰에게는 너무 일상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 작은 풍습도 보존해야 한다. 시대 변화로 인해 단절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이 보존 사각지대에 있는 불교무형유산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사업이 진행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오심)는 최근 국고 1억 원을 지원받아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사업의 조사 및 연구는 동국대에서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예비 조사 형태로 이뤄지며, 문헌을 중심으로 범불교적으로 어떤 무형유산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피게 된다. 문화부는 3월 중 자문위원 등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조계종은 불교무형유산 발굴에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08년 종단 내 무형유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종목 조사를 한 바 있다. 2013년 12월에는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을 제정해 사찰과 단체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을 종단 차원서 지정해 보존에 나섰다.

지난 2017년에는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재 △해인사 단옷날 소금 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 무형유산에 대해 종단 지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조계종이 올해부터 추친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사업'는 불교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재 전승 상황 등을 확인하고 문헌을 통해 실전된 무형유산들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 조사 사업은 무형유산의 종목을 파악해 목록화하고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과 구한말 이후 실전된 무형유산들을 파악하는 것도 우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차기년도에는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종목별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제 종정 예하 "부단한 정진 당부"

전국 선원 경자년 동안거 해제

경자년 동안거 기간 중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좌들이 2월 25일 해제를 맞아 일제히 산문을 나섰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결제와 해제에 무관하게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며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는 2월 25일 경자년 동안거(冬安居) 해제를 맞아 해제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한 번의 발심(發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용기를 가지고 결제와 해제에 무관하게 전 생애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새벽이 오면 반드시 날이 밝듯이 화두일념이 현전(現前)하여 지속되기만 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오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경자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올해 동안거에는 전국 93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0곳)에서 총 1951명(총림 244명, 비구 1054명, 비구니 653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총림 방장 해제 법어 9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